

아이코노그래피 : 서양미술 속에 숨겨진 알레고리, 신화와 성서 읽기  
윤 익 영

## 제 4강 천 사

앞장에서 아모르는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서 귀엽고 포동포동한 고대적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은 곧 천사에게 옮겨져 르네상스의 새로운 창작물인 '아기천사'로 태어난다. 천사는 처음엔 날개 없이 두광만 그렸다가 6세기경에 이르러 그리스의 니케상(도판)을 모방하여 치품, 지품천사에게만 날개가 달아주며, 어린 아모르를 본 때 르네상스 이후 날개는 천사들의 상징물이 된다. 하늘엔 7명의 대천사 중 '수태고지'나 최후의 심판 때 '부활'을 알리는 나팔수(도판)로 그려지는 가브리엘 천사와 천사군대의 대장으로 최후심판 때 저울로 영혼의 무게를 재는 미카엘 천사(도판)와 '수호천사'이자 '치료의 대천사'인 라파엘천사(도판)가 있다.

### 3.1. 천사의 어원

'하나님의 그림자'란 뜻의 히브리어 '말라크'에서 파생되었고, 그리스어 '앙겔로스(천사)' 즉 '전달하는 자'란 뜻이다. '말라크'는 '세상 왕들의 명령을 전하는 자'(왕상19:2),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학1:13)로 불리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라 한다. 앙겔로스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보호하며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천사의 개념은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서 나왔다.

### 3.2. 천사의 계급

◆ 『천상의 위계』 (500년경)에서 설명한 천사의 계급

‘스랍’들로 구성된 세라핌(치품천사熾品天使)

‘그룹’들로 구성된 게루빔(지품천사智品天使)

좌품천사(座品天使, Thrones)                  옥좌 지킴

주품천사(主品天使, Dominations) - 관을 쓰고, 구슬과 홀을 듸(도판)

역품천사(力品天使, Virtues) - 백합과 붉은 장미(도판)

능품천사(能品天使, Power) - 투구

□ 두 번째 계급의 천사들은 별들과 그 밖의 우주를 관장 함

권품천사(權品天使, Princedoms)                  지상의 왕국을 수호

대천사(Archangels)

천사(Angels)

모든 계급의 천사들은 ‘천사 찬양대’를 구성(도판), 천사들의 합창과 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도판)

**3.3. 세라핌 천사**

◆ 세라핌의 형상 - 「이사야」 (6:2~3)

“스랍들(세라핌)은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

이 온 땅에 충만 하도다’하더라”

첫 번째 계급                  →                  ‘상투스 찬미 송’ 서

볼 수 있다.(도판)

두 번째 계급                  →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

더라 “(이사야 6:6)

세 번째 계급                  →                  단의 숯불을 관장하는 ‘불타는 존재’                  →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천사

### 3.4.케루빔 천사

#### ◆ 케루빔의 형상 - 「창세기」

“이같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케루빔)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세기 3:24)

□ 식별(識別)의 화염검을 휘두르며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의 보좌와 낙원의 네 곳을 지키고 있다.

#### ◆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케루빔의 형상

“(...)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 그 날개는 들어 퍼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 생물의 앞 모양은 타는 숯불과 쬔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에스겔 1:4~28)

□ 2쌍의 날개와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의 형상을 했으며 숯불과 쬔불 같다고 함

#### ◆ 사도요한 <요한 계시록>에서의 케루빔의 형상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 계시록 4:6-8)

□ 에스겔과 대동소이하며 다만 날개가 세라핌처럼 3쌍이라고 했다. 중세의 베네치아 화가 자코벨로(Jacobello Albergno)가 남긴 <요한 계시록>(1360~1390)(도판) 참고

### 3.5. 최후의 심판과 케루빔 천사 ; 테트라모르프(tetramorphs)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http://www.artnstudy.com)

#### ◆ 테트라모르프(tetramorphs)

최후의 심판 때 하늘 보좌의 네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로마네스크 교회의 주요 테마

'테트라(4개)모르프(형상)'의 유형은 사대원소(四大元素)를 합한 절대적 힘을 상징

종교에 따라 달리 묘사되는데, 이집트는 호루스 신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하나는 사람의 머리고 나머지는 동물 형상, 힌두교는 브라마신이 네개의 머리를 갖고 있음

#### ◆ 최후의 심판의 주요테마 '케루빔 천사'

교회의 벽화나 조각, 세밀화 등 수 없이 장식된 테마(도판)

케루빔 천사들의 장면을 연출한 '최후의 심판' 주제를 팀파눔에 묘사하길 선호

천년왕국설(千年王國說)에서 비롯된 말세주의의 산물, 교회의 권위를 표현하는 주제

르네상스까지 이어져 라파엘로의 (도판<에스겔의 환상>)에서 확인, 프랑스 남서부의 모와사크(Moissac)의 생피에르 수도원의 팀파눔에서도 확인(도판)

□ 보좌 아래로 3단으로 층을 가르고, 24개의 보좌 배열,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 묘사(인물의 나열은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방식)

### 3.6.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상징

#### ◆ 케루빔은 네 명의 복음서 기록자를 의미

마태 - 날개 달린 사람, 예수와 인성과 체현(말씀의 육체 화), 지혜를 상징

마가 - 날개 달린 사자, 예수와 왕위와 힘, 사막에서의 길을 예비함을 상징

누가 - 날개 달린 수소(송아지), 예수와 희생과 속죄, 성직, 봉사를 상징

요한 - 날개 달린 독수리, 예수와 신성과 승천, 민첩함을 상징

□ 12세기 프랑스의 한 베네딕트 수도원의 기둥머리장식에서 볼 수 있다.(도판<복음서 기록

자들의 상징>, <천사와 세라핌>)

□ '십자가의 사방'에 배치된 복음서 기록자들을 케루빔으로 묘사하기도 한다.(도판)

### 3.7. 르네상스 시대의 세라핌과 케루빔

#### ◆ 중세의 세라핌과 케루빔

세라핌과 케루빔의 다른 형상, 세라핌은 붉은색과 촛불을 들고 있고 케루빔은 파란색 ('바람의 날개')과 책자를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

#### ◆ 중세 말엽의 세라핌과 케루빔

케루빔 역시 붉은색(또는 노란색)으로 묘사, 통합적 이미지로 결합, 초기 르네상스 무렵의 로첼로(Rossello di Jacopo Franchi, 1377-1456년경)의 (도판<마리아의 대관식>)

#### ◆ 르네상스 시대의 세라핌과 케루빔

아모르처럼 날개달린 어린아이로 묘사(도판), 점차 몸체 없는 얼굴에 3쌍의 날개를 지닌 어린아이로 묘사(도판), 혹은 한 쌍의 간략한 모습으로 묘사(도판)

### 3.8. 르네상스의 아기천사 : <시스티나의 마돈나>

#### ◆ 라파엘로의 <시스티나의 마돈나>(1513~1514)(도판)

'시스티나'는 식스투스(1471~1484) 4세이며, 로마를 예술의 중심지로 이끈 교황

율리우스 2세(1503~1513)가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고 시스티나와 성녀 바르바라에 바침

성찬식을 주제로 한 제단화 - 시스티나와 율리우스 2세의 성(姓)인 로베레(Rovere, '도토리'란 뜻) 모양으로 장식된 교황의 삼중보관. 남은 빵과 포도주를 다시 하늘로 가져가는 아기천사 묘사

성녀 바르바라 - 중세 때 위험을 무릅쓴 용맹스런 자들의 수호성녀이며, 지물은 성배와  
성체(성찬식에 쓰이는 과자류), 배경에는 번개와 탑이 그려지는 것이 특징

### **3.9. 아모르 같은 천사 ; <성녀 테레사의 법열>**

#### **◆ 바로크 조각의 선구자 베르니니의 천사 작품**

성 베드로 성당의 핵심부인 (도판<성 베드로 옥좌의 제단>)에 빼곡히 장식 된 천사

산타 마리아 델라 빅토리아 성당의 (도판<성녀 테레사의 법열>) - 천사의 화살에 찔려  
하나님의 영적 애무로 형용할 수 없는 감미로움에 빠진 테레사를 묘사한 장면, 아모르  
같은 천사의 모습은 성녀의 육체적 도취가 아모르에게 왔음 직 하기 때문

천사와 아모르의 식별 방법 - 아모르는 활, 횃불, 나뭇단을 소지하며 눈을 가리기도 하  
며, 천사는 화염검, 악기, 백합, 홀(笏), 향로 등을 지님, 뚜렷한 지물이 없을 경우엔 고대  
신화일 겨우는 아모르, 성서 그림에서는 천사 임

### **♣ 우상과 성상(아이콘) 논쟁**

8,9세기에 1,2차로 걸쳐 두 번 일어난 '성상 파괴논쟁'

#### **◆ 성상 옹호론자들의 주장**

첫째, 그리스도의 육화를 근거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묘사 가능

둘째, 성상은 원형(실체)을 가리키는 이미지인 것이지 스스로 실체이고자 하는 것은 아님

셋째, 성상 파괴주의자들이 아이콘이라 불리는 그리스도는 아이콘이 아니라 실체라 주장

넷째, 십자가를 공경하는 성상 파괴주의자들이 아이콘을 거부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태도

#### **◆ 중도적 성상 파괴주의자 -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인간의 육신이기에 형상 묘사 가능**

◆ 성상 파괴론자들은 레오3세, 5세와 같은 비잔틴 제국의 황제이며, 이들은 정략적 수단으  
로 교권을 위축시키고자 성상을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초상을 세우길 권장

◆ 성상 파괴주의자들이 성상 옹호론자들을 비판하는 이유

첫째,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육화 기간 동안이지만 불명예스러운 질료 따위로 그린 것, 둘째, 성모와 성인을 생명 없는 초상화로 그려 공경하게 한 것, 셋째, 생명 없는 물질에 불과한 성상 앞에서 향을 피워 숭배하게 했다는 것, 즉 성상제작은 신성모독과 우상숭배라는 것임을 비판 함

◆ 시, 청각 우월 논쟁

성상 옹호주의자 - 시각우월 주장, 성상(미술)과 글(경전)을 장려(반동 종교개혁)

성상 파괴주의자 - 청각우월 주장, 찬송(음악)과 말씀(설교)을 장려(개신교)

□ 성상 파괴주의자들은 자연 모방을 배척하는데 이르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모방하여 제단과 예복을 장식하라 하셨으며, 날개달린 천사(케루빔)와 살구꽃모양의 등잔대도 만들라 하셨다.